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2 : 부산시민의 눈물'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0일(화),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2편 : 부산시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정책브리핑 특별호 2편, 부산시민의 눈물’은 박형준 부산 시정의 실정을 정리한 자료”라며, “화려한 언변과 제시한 청사진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던 박형준 부산시정의 정책적 실패, 공약 파기, 실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이 박형준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박형준 부산 시정의 12가지 문제를 EXPO 유치 실패와 소멸위험지역 대응 미흡 등 정책적 무능, 어반루프와 해양도시 공약의 실종 및 잇달아 지연되는 교통 인프라 사업 등 행정적 무책임, 부울경메가시티 파기와 계엄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 등 정치적 무도덕의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 첫째, 정책적 무능으로 참패한 부산 EXPO 유치, 청년인구유출과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었다.
- 둘째, 행정적 무책임으로 실종된 어반루프(Urban Loop) 사업 및 해양도시 공약, 교통 인프라 사업 지연, 구덕재개발 및 풍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 관련 논란을 다루었다.
- 셋째, 정치적 무도덕으로 부울경메가시티 일방 파기,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 사업 폐기,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미온적 대응, 계엄 관련 발언, 부산 시정 상징 사례를 다루었다.
-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2편, 부산시민의 눈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정을 냉정히 평가해 부산시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